

# 인천공항, 최악의 2020년... 지난해 이용객 83% 줄었다

### 인천국제공항, 지난해 이용객수 1205만명 집계 국제선과 국내선 각각 1195만여명과 9만4천명 작년 1월 631만명 시작...4월부터는 20만명 안팎 이 기간 항공기 운항수, 15만편...전년 비 6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이 1200만여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도 코로나19가 본격 확산 국면으로 치달기 전인 1월과 2월에 각각 600만명과 300만명을 넘기면서 나온 수치다.

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204만98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제선과 국내선 승객은 각각 1195만5756명과 9만4096명이다.

이는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한 전년 7116만9722명과 비교해 83.1%가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이용객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이용객은 630만9369명(전년대비 -0.9%)으

로 집계됐다. 이후 ▲2월 338만1632명(-41.5%) ▲3월 60만9516(-89.6%) ▲4월 15만3514명(-97.3%) ▲5월 13만7924명(-97.6%) ▲6월 18만2523명(-97%) ▲7월 21만9153명(-96.5%) ▲8월 23만4958명(-96.3%) ▲9월 19만6864명(-96.4%) ▲10월 19만7383명(-96.6%) ▲11월 19만8789명(-96.4%) ▲12월 22만8227명(-96.3%)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감소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3월 국내 31만 확진자로 시작된 대구발 신천지(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 교인들의 대규모 확산 사태로 인해 4월부터 인천공항의 월간 이용객은 20만명 이하로 추락했다.

이같은 확산세 속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

의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내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것도 인천공항의 이용객 하락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4월부터는 국내 방역체계가 성과를 거두며 상황이 점차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는 듯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추세에서 백신과 치료제만 개발된다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적인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12월부터 다시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혼돈 속에 빠져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운행한 항공편은 14만9982편으로 전년 40만4104편과 비교해 63%가 감소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은 같은 기간 209만3702명으로 전년대비 75%나 줄었다.

반면 항공화물의 운송량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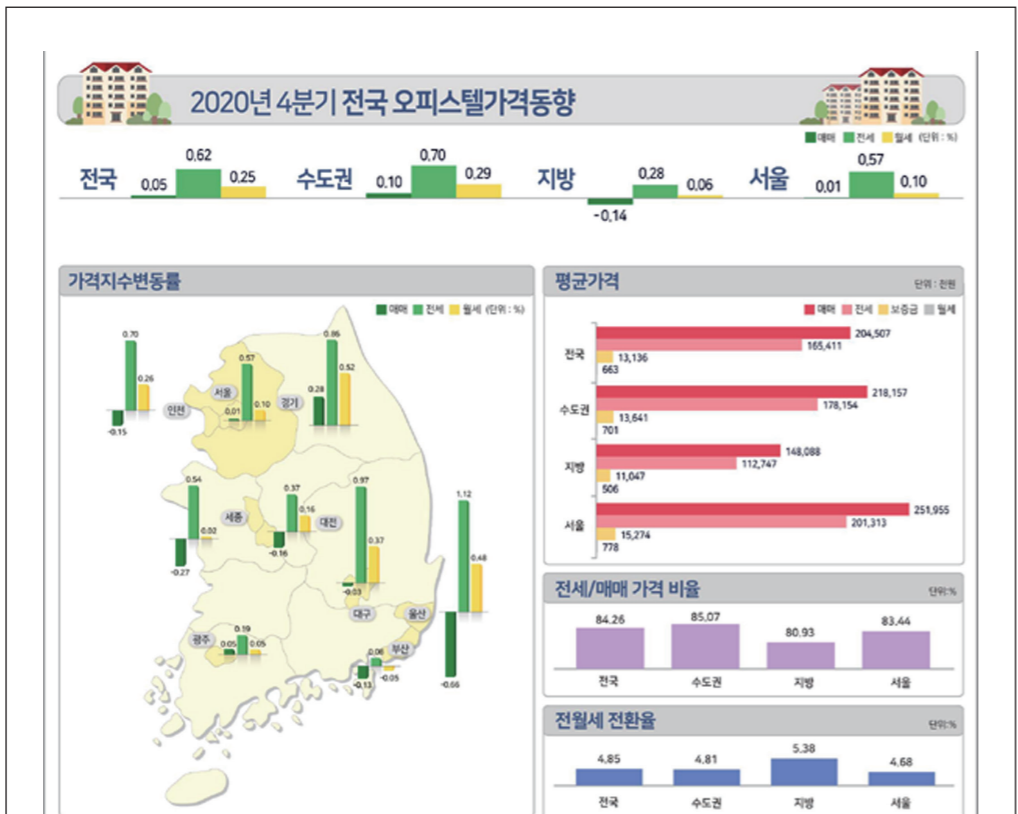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화물은 282만2370t으로 전년 같은기간 276만4369t과 비교해 2.1%가 늘었다.

항공화물의 증가는 국내 항공사들이 승객이



크게 줄어 운항하지 못하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전세계 각국으로 화물을 운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공항 관계자는 "올해(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하반기부터는 국내공항의 상

황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올해 국제여객은 1352만명, 국제화물 277만t, 국제화물 17만7000t으로 전망했다. 김미희기자



## “전세 날고 매매 기고”...오피스텔 ‘강통전세’

###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 84.26%...최근 3년 내 최고

장기화되는 주택 수급난에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가율이 매매가격을 빠르게 추격하며 부채(대출+보증금)가 집값보다 커지는 '강통전세'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2월14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2019년 12월 기준 84.26%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1월 이래 최근 3년 내 최고치다.

시도별 전세가율을 보면 세종은 91.63%로 전국 최고다.

이어 인천 86.89%, 경기 86.34% 등 수도권 지역이 높게 조사됐다.

서울도 83.44%로 전 분기말(82.99%) 대비 0.45%p 상승했다. 반면 울산 79.38%, 부산 79.71%, 대구 81.9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전세가율은 저금리 유행성 확대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공비행'을 지속하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지난해 4분기 0.62% 올라 전 분기(0.27%) 대비 커졌다. 서울도 4분기에만 0.57% 올라 2분기 연속(0.15→0.33→0.57%)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0.86%), 인천(0.70%) 등을 포함한 수도권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률은 0.70%로 집계됐다.

지방은 0.28% 상승한 가운데 울산(1.12%), 대구(0.97%), 경기(0.8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오피스텔 월셋값도 오름 폭이 확대됐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25% 상승

해 전 분기(0.07%)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반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셋값이 매매를 따라 잡는 형국이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9월14일) 대비 0.05% 오르면서 전 분기(-0.06%) 대비 상승 전환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0.28% 올라 전 분기(0.03%) 대비 오름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분기 대비 0.14% 하락했다.

역세권과 학군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수요가 꾸준하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업에 따른 일부 투자심리 위축과 노후 단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강통주택'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 '세종시 천도론'의 여파로 1.00% 올라 급등세를 나타내다 4분기 들어 마이너스(-) 0.27%로 급락했다. 반면 전셋값은 4분기에도 0.54% 올라 매매-전세간 시장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도 지난해 4분기 전셋값은 0.70% 오른 반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5% 떨어져 매매와 전세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의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서울시, 6대 광역시, 세종시 및 경기도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 새해 원·달러 환율 하락...1082원으로 '뚝'

### 4.2원 내린 1082.1원 마감

새해 원·달러 환율이 1082원선에서 하락 마감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086.3원)보다 1.2원 오른 1087.5원에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한 뒤 4.2원 내린 1082.1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4일(1082.1원)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다. 장중 1080원선까지 내려가 지난 2018년 6월 12일(1077.2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따른 새해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금융시장 내 위험선호 심리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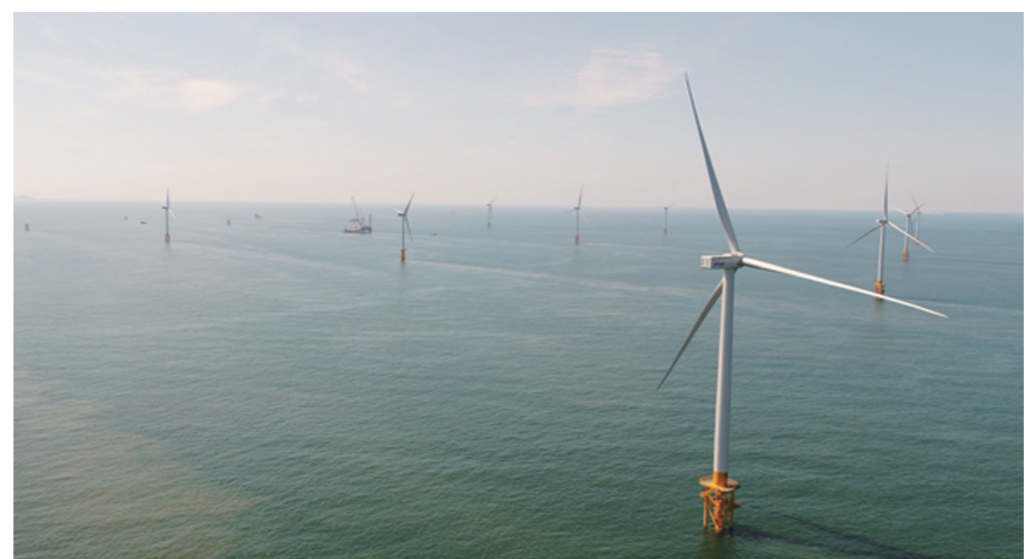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

수가 나타난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2.47% 오른 2944.45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1조285억원, 외국인은 842억원을 순매수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가파른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적이다. 나중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지난해 4분기 가파른 하락에 따른 부담으로 올해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24원 수준으로 완만한 'V'자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태양광·풍력 기술력 확보 박차...‘녹색보증’ 상반기 출시

### 산업부, 금융권·기보와 협약 맺고 500억 투입



정부가 기술력을 갖췄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위해 조만간 '녹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추진되는 '녹색보증'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이다. 산업부는 금융권,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설치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신용도와 관계없이 기술력과 탄소 감축 효과 등을 평가해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해당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술

력을 평가받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가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해외 동향' 자료를 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주정부 예산으로 해당 기업에 약 8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친환경 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8%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설비용량은 82.2GW에 달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태양광·풍력발전이 기존 석탄발전과 원전을 넘어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게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녹색보증'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특히, 풍력의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크다.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정부가 눈여겨보는 해상풍력의 경우 독일·스웨덴의 지멘스-가멘사, 덴마크의 MHI-베스타스, 중국의 세윈드 등 기업 3곳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국내 업체는 소수의 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으로 구성돼있다. 그간 국내 시장 확대가 지체되면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열세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4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해당 기업은 9개 정도다.

또한 국산화를 추진하는 핵심 기술로 고효율 태양전지, 12MW 이상 초대형 풍력 터빈,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을 꼽았다.

오유나기자

##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10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 청소로봇 부문에서 유일 선정

유진로봇은 로봇청소기 브랜드 '아이클레보'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세계일류상품 청소로봇 부문에서 10년 연속 '현재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연속 수상이다.

현재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 5% 이내이거나,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수출액이 1위인 경우 선정된다.

회사측은 "아이클레보는 가정용 로봇청소기 브랜드로 유럽, 러시아,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며 "전자식 수동, IoT(사물인터넷) 등 편의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